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구자춘	학번	
이메일	arale@lh.or.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Kentucky / Master of Public Policy (국가) USA		
기 간	2017.01~2017.12		[귀국일: 2018년01월0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2월 14일

신청인 : 구자춘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켄터키 대학원이 있는 켄터키주의 렉싱턴에 가는 경로는 달라스, 아틀란타, 시카고가 있습니다. 비교적 아틀란타나 달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카고는 겨울에는 매우 춥고, 세관도 좀 까다로운 편이며,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여 처음 이용시 혼동할 여지가 많습니다.

렉싱턴에 도착하니 마틴스쿨 내의 한국인 담당 교수님이신 김두옥 교수님께서 세심하게 정착을 준비해 주시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렉싱턴은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백인이 많고 교육수준도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합니다. 봄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의 양은 매우 적은 보슬비 수준입니다.

렉싱턴에서의 생활은 렉싱턴의 남서쪽에 위치한 버몬트 지역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로사파크스 초등학교"가 렉싱턴 시에서는 가장 우수한 초등학교라서 아이들 교육에 매우 좋은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사파크스 초등학교는 아침 7시30분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주어야 하고, 오후 2시30분에 데리러 가야 합니다. 저는 버몬트 팜스 아파트에서 살았고 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는 \$1,076이며 전기료, 수도료, 하수료는 한달에 약 \$200 이하로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버몬트 팜스 아파트 주변은 "크로거"(대형 식료품 마트)와 우체국, YMCA, 그리고 버몬트 도서관이 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대학원의 공공정책대학원인 "마틴스쿨"은 매우 우수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위를 받기 위한 "캡스톤"은 두번째(가을)학기 11월 중순까지 마쳐야 하는데, 모든 수업은 이 캡스톤을 작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 한 순간도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완벽하고 심도 있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커리큘럼이 좋아 수업에 충실하면 캡스톤을 스스로 작성 할 수 있는 학문적 기본 소양은 물론 더 깊은 학문적인 수준에 도달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너무 좋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성심껏 지도해 주십니다. (갑자기 이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곳 교수님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캡스톤의 주제는 공공정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상당량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귀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TATA를 쓰고 그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는 강의도 있는데, 매우 흥미로웠고, 실제로 STATA가 미국의 많은 논문에서 가장 선호되는데 비하여 국내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고, 활용도가 적다는 것이 좀 의아할 정도로 STATA는 사회 경제적 현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우수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켄터키 대학원의 마틴스쿨에서는 자기가 재량으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KDI학생을 위해서 특정 과목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봄학기 때, 4과목, 가을 학기 때 4과목을 들고 캡스톤은 따로 작성합니다.

각 수업은 통계학, 공공경제학, 조직론, 정책론 등이 있으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캡스톤 작성의 강도는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마틴스쿨에서는 양질의 캡스톤 발굴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신경쓰고 있으며, 캡스톤은 큰 행사처럼 발표회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서 4명 정도의 교수님들의 심사를 공개토론등을 통해 받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관하다 보니 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거의 몇 일을 캡스톤 발표(프리젠테이션) 준비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하고 노력하여 마지막에 캡스톤을 패스 하게 되니 학문적인 성취도는 매우 높았고 보람도 많았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기숙사는 없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거지를 정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아파트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변의 자연경관도 좋았고, 쇼핑도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렉싱턴에는 H마트가 없어서 한국음식 재료를 저렴하게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내인 니콜라스 빌에 위치한 코스트코, 월마트와 크로거를 많이 이용했으며, 가전제품은 베스트바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쇼핑하고 조금 사용한 물건도 환불이 자유로운 점이 좀 신기하였습니다.

자주 갔던 음식점으로는 "텍사스"의 스테이크, "루스터"의 치킨, 및 "레드 랍스터"의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맛있었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여기에 학위과정 및 비학위 과정으로 오신 분들은 와이프와 함께 골프도 많이 즐기시는 편이었는데, 다들 너무 재미있어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엠씨에이에 등록하여 수영과 헬스를 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렉싱턴 한인 장로교회"에 다녔었는데, 비교적 젊으신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고, 교회에서 먹는 점심도 한식이라서 맛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켄터키 지역이 미국의 중앙부라서, 비행기를 이용하지는 않았고, 여름방학 3개월동안 렌트카로 서부, 동부, 캐나다를 저렴하게 여행하였고, 겨울 귀국 전에는 남부를 여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도시보다는 국립공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중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가장 인상 깊었고 멋있었습니다.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2년차 외국 교육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켄터키는 아주 좋은 곳이라서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뿐 아니고 가족들 모두 켄터키를 좋아했습니다.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저는 F1비자를 선택했는데, J1비자보다 유리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통관절차를 시행합니다. 운전면허는 따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외 생활은 "구글맵"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호텔예약은 호텔닷컴으로 하였고 중저가 호텔로는 "베스트웨스턴"을 추천드립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시는 분은 켄터키대학원 마틴 스쿨의 MPP과정 선택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켄터키주 렉싱턴 시에서의 생활에 온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만족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원(켄터키대학원 마탄스쿨)은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학교이며 교수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학생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풍을 가진 학교로서, 제가 경험했던 교육기관 중 가장 모범적인 곳이었습니다. 혹시 켄터키 대학원이 있는 도시와 미국내 위치(촌이라는 느낌)라든지 학교의 수준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너무나 좋은 곳이어서 다시 가도 켄터키로 갈 생각이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조재창	학번	
이메일	Warfighter98@lh.or.kr		

대학원명	University of Kentucky (Public Policy)	(국가) USA
기 간	[귀국일:2018년 1월 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2월 6일

신 청 인 : 조재창 (인)

University of Kentucky는 지리적으로 미국 중동부에 위치하며 말과 사계절내 푸른 잔디로 유명한 Kentucky주의 렉싱턴라는 도시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온과 계절의 특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특히 년초에 눈이 많이 내린다. 12월에 Bluegrass 공항에 도착할 때는 아늑하고 조용한 정원생활을 꿈 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앓고 있었지만, 1년간 지낼 집을 기존 학생에게 인수를 받지 못해서 새롭게 생활터전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기대가 이루어 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아내, 두 아들 및 막내 딸아이 등 총 5식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까지는 2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인내를 시간을 보내야 했다. 켄터키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Lexington은 대학타운으로 UK로 인해 성장한 도시이며, 말 목장들이 타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족은 렉싱턴 남동부의 신시가지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그곳은 렉싱턴과 인접하여 도요타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일본인들도 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YMCA, 도서관, 공원, 마트 및 우체국 등 여러 가지 편의,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아이들이 다닌 초등학교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친구들도 다들 친절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크게 느끼지 않고 생활했었다.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초창기 적응에는 힘들어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하고 가을학기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Lexington에 도착하면 처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차량구입이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그 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차량을 구입 할 수 있으나 당장 차량이 필요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도착 다음날 바로 지인의 도움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다. 같이 온 다른 학생의 경우 구입한 차량에 대해 불만족 하며 1년 내내 차량구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 만큼 차량구입은 미국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으로는 아이들 학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떤 병원을 가야 할 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등 사전에 정보를 알 지 못하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의 학교 등록은 예방접종 번역, 신체검사 등 몇 가지 절차 이행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으로 Kentucky주는 국제면허를 소지 할 경우 많은 차량보험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학교 등록 후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미국면허를 취득해 보험을 변경해야 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한글로도 진행 할 수 있어 조금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으나 실기시험은 그렇지 않다. 어떤 감독관과 주행 시험을 보는 지에 따라 상당히 주관적인 결과가 나왔다. 어떤 사람은 합격률이 높은 감독관을 만나 쉽게 취득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매번 엄격한 감독관을 만나 4번째 실기시험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었다. Kentucky의 운전면허 취득은 한국보다도 어려웠다.

Lexington에서 학교생활의 대부분은 UK 강의실 및 도서관에서 보냈다. 학업은 쉽지 않았고 과제 및 사전 Reading자료가 상당히 많았다. 언어적인 문제를 넘어 절대적인 학업량이 한국에서의 대학생활과 비교할 때 훨씬 많게 느껴졌다. 봄학기에 5과목을 수강하고 주 4일을 학교를 갔다. 가을학기는 4과목을 수강하면서 Capstone 작성 및 발표를 진행했었다. 가을학기는 거의 학교생활에만 치중했던 것 같다. 수업내용은 크게 정책분석, 회귀분석 및 경제학이 주를 이루었다. 봄학기에는 정책분석을 통해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에 대한 근거를 데이터 분석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그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KDI에서 조사방법론을 수강하였으나 UK에서는 좀 실무적이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cleaning을 하고 입력하고 분석하는 좀더 실제적인 과정이었다. 실무적인 데이

터를 작업과 동시에 회귀분석에 대한 이론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Regression에 대한 심도 있는 학업을 진행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가을학기에 있는 Capstone Project에 필요한 사전 학습과정이라고 학교측에서는 설명하였다. 개량경제학, 회귀분석학 등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정말 쉽지 않았다. 같은 한국 학생들과 Study group를 하면서 조금은 수업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가을학기는 경제학과 Financing 과정을 동시에 수강하면서 세금, 금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가을학기도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겨울방학이 짧고 여름방학이 길다. 여름에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저서 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아무래도 여름에 긴 방학 기간을 보내는 듯 했다. 긴 여름방학 동안 가족들과 미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을 경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내가 살고 있는 Kentucky주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의 대도시 및 광활한 국립공원을 우선 둘러보았다. 과거 언론이나 책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방문하니 그 느낌, 그 순간의 감정은 정말 말로는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감탄사를 내 뿜게 했다. 날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남부는 매우 무더웠으나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체감온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졌다. 미국은 광활한 대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는 것이 장점이다. 물론 국토가 넓어 환경훼손이 작을 수 있으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자연보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족들과 여러 국립공원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Tracking도 하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며, 방학기간 대부분을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미국의 서부지역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수 있다면 북부지역은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았다. 대통령 조각상으로 유명한 Rushmore 나 최초 원주민들의 생활이 깃들여 있는 Dakota주에서 미국의 정치와 옛 원주민들의 생활 및 정신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동부는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미국최대의 도시 뉴욕 City와 워싱턴이 위치하고 있어 도시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또 필라델피아는 미국 옛 수도로서 역사적인 상징성과 여러 유적을 보존하고 있어 나름대로 미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뉴욕 City는 고층건물이 즐비했고 세계 금융을 대표하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 속에 포진하고 있었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넘쳐났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과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또 하나의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보낸 1년간의 시간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아파트라고 해서 한국에서의 고층아파트를 생각하면 안되며, 최고층수가 3층 혹은 4층으로 만들어진 목조건물이다. 미국에서는 층간 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는 듯하다. 이는 선천적으로 미국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예의의식이 높고 또 층기류 소지가 허용되고 있어 개별적으로 주의해서 생활하는 듯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1년간의 생활에서 느낀 점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의 미국인들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많이 이해해주는 것 이다. 대도시의 번잡한 기억을 제외하면 1년간의 생활이 즐겁게 느껴진 것 같다. 특히 Kentucky Lexington은 조용하고 가족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는 최적의 도시이다. 대학원을 선택할 때 본인의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조용한 중소도시를 추천하고 싶다. 대도시나 유명한 지역은 여행을 통해 충분히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1년간의 생활을 준비하면서 출국 1개월 전의 그 느낌은 거대한 설레임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행복한 나날이었다. 꿈에 그리는 생활을 그리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행복이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1년이라는 생활보다 그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절

대적으로 즐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준비시간을 최대한 만끽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기대한 것 만큼 기대치를 안겨 준 것 같지는 않다. 결국 꿈에 그리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실 생활에 이어질 때는 현실의 벽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듯 했다. 첫 도착에서부터 초창기 안정적으로 생활하기까지는 힘 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보내야만 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던 시간도 추억의 책장에 장식되듯이 누구나 꿈꾸는 미국에서의 생활은 나를 포함하여 우리가족에게는 큰 추억의 선물을 받은 듯 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또 길게도 느껴지는데 보다 알차고 실속 있게 보내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이것저것 경험하고 시도하는 것이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추후 과거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발자국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알차게 보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기에 본인이 계획한 내용이 얼마나 실행 되었지에 목표달성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 또 미국에서의 생활에 중요한 요소는 따뜻한 이웃이 있으면 생활이 풍족해 지는 것 같다. 좋은 이웃을 만나거나 같이 간 가족들이 즐겁게 잘 지내는 것은 아이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든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인 것 같다. 그렇게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도 더 노력해야 될 사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추가하자면 출국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매번 발생했던 것 같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 일수 있고 또 더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미국의 실 생활, 여행 및 학교공부 등 많이 준비하는 것이 더 뜻 깊은 미국생활을 보내는 최선을 방법인 것 같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전혜진	학번	
이메일	ooholic007@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전공) Martin School(Univ. of Kentucky) / MPP (국가) U.S		
기 간	2017.1~2017.12Bournemouth		[귀국일: 2017년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월 29일

신 청 인 : 전 혜 진 (인)

1. 개요

제가 GMP 2년차 과정을 수료한 곳은 켄터키대학(University of Kentucky, UK)의 마틴스쿨(Martin School)로 미국 켄터키주의 렉싱턴(Lexington)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소재한 렉싱턴시는 켄터키 주의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30만이 조금 넘는 중소형 전원도시입니다. 미국 내에서 블루그래스(Bluegrass)라는 잔디와 경주마의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평지와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연중 푸르른 잔디로 뒤덮여 있으며 도시 외곽에는 많은 수의 말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과 관련된 공원과 박물관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인근의 루이빌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최대의 경마대회인 켄터키 더비가 개최됩니다. 주변의 이름있는 도시로는 1시간 반 거리에 신시내티, 3시간 거리에 내쉬빌이 있고 6시간 거리에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및 애틀랜타가 있으며, 8시간 거리에 워싱턴 D.C 그리고 12시간 거리에 뉴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로 한나절(10시간 내외) 거리는 손수 운전하여 이동합니다.

이 도시는 켄터키주의 플래그십 주립대학교인 켄터키대학과 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트랜실베이니아대학교(Transylvania University) 등 다수의 대학교가 모여있는 대학도시이며 또한 켄터키대학 의과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및 클리닉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의료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학과 병원이 이 도시의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 수준도 주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구성은 켄터키주 전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백인이 90%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며 흑인, 히스패닉 및 아시안 등 타 인종은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렉싱턴시 북쪽 조지타운(Georgetown)이란 곳에 토요타(Toyota)의 현지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어 상당수의 일본인 주재원 및 가족들이 렉싱턴시에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남부에 속해있어 주민의 절대 다수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으며(선거 유세와 상관없이 공화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어지간하면 선거유세를 오지 않는다고 함) 당연히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대개 친절하고 편이며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한국의 순박한 시골 어르신의 느낌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제 나름의 결론은 그들에게 익숙치 않은 외모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서 오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어색함에 기인하는 현상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다음으로 렉싱턴시의 기후는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뚜렷한 4계절이 존재하고 여름은 섭씨 30도 초반까지 기온이 상승하지만 습하지 않은 탓에 무덥다는 느낌은 크게 없으며 겨울도 섭씨 영하 5도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그리 춥지 않은 날씨입니다. 봄과 가을은 청명한 하늘과 온화한 날씨로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날씨를 보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세먼지나 기타 대기오염에 따른 걱정은 전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연중 내내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햇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필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건강에 좋습니다.

렉싱턴시의 치안은 미국내 다른 대학도시들과 비슷하게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가끔 SMS를 통해 총기 소지자가 교내에 나타났다는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1년 동안 1회 받아봄), 로컬 뉴스에서도 총기관련 사고 소식은 거의 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하다고 해도 미국인지라 늦은 밤에는 가급적 도보 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외 사회 안전망(소방, 패트롤 등)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2. 현지생활

우선 도착 후 가장 먼저할 일은 거주할 주택을 정하는 것입니다. 렉싱턴시의 경우 미국 내에서 물가가 그리 높지 않은 지역에 속하며 주택 임대료 또한 동부나 서부의 대도시권에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 한국 유학생 가족(부부+자녀 1~2명)의 경우 2Bed+2Bath의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 경우 임대료는 월 기준 1,000불 내외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저렴한 곳도 많지만 각종 생활상 편의, 자녀교육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을 선택할 경우 통상 이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학생 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버몬트(Beaumont), 햄버그(Hamburg) 등이며 도시의 남부 및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새로운 주택 및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거지 선택 시 북부 지역은 가급적 피하고 도심 순환도로(New Circle Road) 기준으로 남쪽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때문에 차량구입은 필수이며 현지 도착 후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 중 하나입니다. 구입방법으로는 여러 옵션이 있으나 현지 딜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차종의 경우 단기 미국생활에서는 승용차 보다는 SUV나 밴이 훨씬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장보기, 여행 등을 감안). 차량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하며 회사별 보험료 및 옵션 차이가 크므로 잘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운전면허는 도착 후 1달 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료 할인 등 감안). 필기시험의 경우 DMB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며, 주행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차량을 가져가야 되므로 차량구입 후 응시하거나 렌트카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 가면 됩니다. 주행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차량보험, 등록상태 등을 확인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생활 유틸리티(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등)는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는 1개의 사업자 밖에 없으나 인터넷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있어 본인이 선택하면됩니다. 단 일부지역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케이블 TV 포함)은 렉싱

턴시의 경우 Time Warner Cable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속도)은 켄터키주 자체가 미국내에서 40위 권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신 대학 내에서는 전용 회선이 있으므로 개별 가정 보다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폰의 경우 현지 유심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던 폰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현지 폰을 2년 약정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번호(10자리)가 부여됩니다. 미국은 주별로 고정된 지역번호(첫 세자리)가 부여되며 집전화와 이동전화의 구별없이 같은 번호를 사용합니다. 켄터키주의 경우 주에 등록된 모든 전화번호의 첫 세자리는 859번 입니다. 국제전화는 카카오 전화 등을 이용하면 무리없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생활용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합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ostco, Target, Walmart, Kroger, Wholefood 등이 있으며 서울 수퍼마켓, 동양마켓 등 아시안 마켓에서 한국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 개념의 소형마트는 모든 주유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전제품은 Best Buy, 침구 및 주방용품은 Bed Bath & Beyond, 사무용품은 Office Depot, 주택용품은 Home Depot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싱턴시에는 종합쇼핑몰인 Fayette Mall이 있으며 Macy's 및 Dillard's 등 백화점과 함께 각종 샵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가까운 Outlet몰은 1시간 거리의 심슨빌(Simpsonvill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식의 경우 익숙한 프렌차이즈 버거나 멕시칸 식당들 외 스테이크 전문점, 이탈리아 레스토랑, 스시 레스토랑, 베트남 음식 전문점 등이 있고 한국식당으로는 한우리,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도로는 켄터키대학(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로가 뻗어 있으며 환형 구조의 순환도로인 New Circle Road와 반 환형의 Man O' War 도로가 이들 방사형 도로와 교차하고 있으며, 출퇴근 러시아워에 약간의 지정체가 있으나 보통은 교통이 원활한 편이고 도시 내 어느 곳이든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망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편의시설로는 YMCA에서 각종 실내 스포츠 및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한 강좌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hillito Park 등 시립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테니스, 농구, 축구, 풋볼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학교생활

학사과정은 봄학기 6과목(16점) 가을학기 4과목(12학점)을 수료하여야 하고 별도의 캡스톤(Capstone)을 작성하여 교수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모두 완료하면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학사일정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받는 순간 굉장히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교수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외국어가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어학성적(토플 등)을 보유할 정도면 수업 청취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의 특성 상 과제 및 각종 테스트가 많고 이를 위해 소화해야 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학업에 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업의 특징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매우 강조하여 적극적인 질문이나 토론을 유도하며 그 정도를 반드시 학점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영어가 조금 서툴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의시간 이외에도 메일을 통해 수업과 관련한 질문이나 본인 생각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교수님들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현지 출신 학생들과 팀 과제를 자주 하게 되는데 미국 학생들의 경우 모여서 토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잦은 미팅이 한국적 정서에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일이므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맡은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됩니다.

대학 캠퍼스는 미국의 어느 대학들처럼 규모가 꽤 크고 150년이 훌쩍 넘는 역사에 걸맞게 고풍스런 옛 건물과 최신의 현대식 건물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커리큘럼에 맞추어 고정된 몇 개의 강의실과 도서관만 오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다른 건물들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방문하지 않는 한 거의 가볼 기회는 없습니다. 등교 및 하교는 기숙사에 살지 않는 한 당연히 자가차량으로 하게 되며 학교내 주차장은 모두 유료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는 학기별 주차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므로 이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별 주차권은 약 150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학 스포츠(NCAA)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프로 스포츠 이상의 인기를 누리는 대학 스포츠팀도 많습니다. 켄터키대학의 경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대학 농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까지 이 팀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2017년도에도 전국 4강전(준결승)에 올라갔으며 준결승 경기 당일엔 도시 전체가 떠들석 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한 농구팀 만은 못하지만 풋볼팀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학교 생활 중에도 가끔씩은 경기장을 찾아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맺음말

개인적으로 GMP 2년차 과정을 돌이켜 보면 꽤 힘들었지만 또한 꽤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언어의 한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끝내고 나니 그만큼의 보람과 성취감도 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들이 현업에서 보다 값지게 실현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성과와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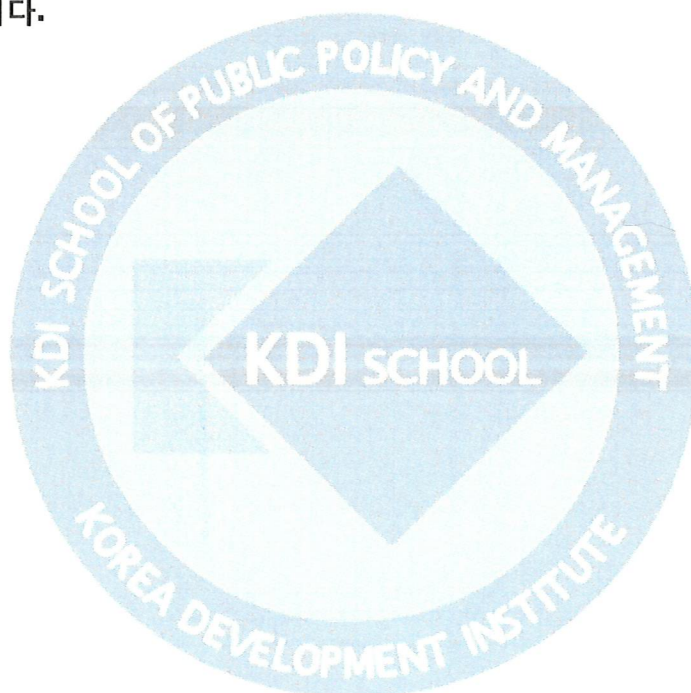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문정만	학번	■■■■■
이메일	mjm9097@gmail.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Kentucky/ Public Administration	(국가) 미국
기 간	2017.1.11 ~2017.12.15	[귀국일: 2018년 1 월 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2 월 5 일

신청인 : 문 정 만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 University of Kentucky가 소재한 렉싱턴은 동부지역에 치우친 동남부 지방으로 기후는 북부와 남부의 중간 기후로 4계절 온화한 편으로 1년내내 푸른 잔디를 볼 수 있음. 켄터키 대학이 소재한 렉싱턴은 대학도시로 학생들이 많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임. 주민의 대다수가 백인들이며 교민은 약 5백여명 거주하고 있음. 주민들 대부분이 친절하고 잘 도와주기 때문에 초기 정착에 큰 어려움이 없음.

- 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초, 중등학교가 있어 학령기 자녀들의 교육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미국내 타 지역에 비해 튜터 비용이 저렴한 편임. 기타 과외활동의 커리큘럼도 잘 갖추어져 있음. 주거지역 주변 곳곳이 공원으로 자녀들과 스포츠, 가족 소풍 등 가족 유대감 향상에도 좋은 여건을 제공함.

2.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켄터키대학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분석에 강점을 보유하여 미국내 공공정책학 분야에서 우수 대학으로 정평이 나있을 만큼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함.

- 모든 학과목이 졸업에 필요한 Capstone 작성을 위해 존재한다 할 만큼 상당히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Capstone 통과시 상당한 학업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GMP 프로그램을 통해 켄터키대학에 진학한 경우,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목만을 수강할 수 있어, 개인취향과 기호에 맞는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2년 정규과정으로 오시는 분들과 비교시 상당히 아쉬운 부분)

- 마틴스쿨은 1학기에 6과목을 수강하게되는데, 그중 1학점짜리 기초수학은 일주일만 수업하며 capstone 작성을 위한 1과목은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2학기 capstone 통과시 비로서 학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과목을 수강하면 됨. 4개 과목은 계량경제학, 통계학, 공공정책 분석 및 평가로 구성되며, 특히 계량경제학은 수준이 높고 매우 어려운 편임.

- 2학기는 4과목 수강 및 capstone 작성으로 구성됨. 4개 과목은 공공재정학, 정책학, 공공경제학, 공공기관이론으로 주입식과 토론식 수업이 적절히 섞여 있음. 특히, 2학기는 capstone을 마무리 해야 하는데,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관련 통계 자료의 수집과 자료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다만, 2018년부터는 capstone 과목이 면제되기 때문에 수업강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한국 유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버몬트지역과 메릭지역으로 거의 양분되는데, 버몬트지역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도시에 해당함. 양 지역이 차이는 크지 않음. 버몬트 지역은 YMCA등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 편리한 편임. 또한, Rosa Park Elementary School은 켄터키 내

에서 학력평가가 우수한 학교로 정평이 나 있어서 교육열이 높은 현지인과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음. 이에 반해 메릭지역은 기존 주거지역으로 조용하고 가족공원 등이 많아 가족들과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산책 등 야외활동을 하기에 매력적임. 단, 버몬트나 메릭이나 모두 목조주택아파트라 집에 있어 큰 차이는 없어 보임. 음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짜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나며 주로 한인 마트를 통해 한국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한국 음식을 조리해서 먹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거주하던 아파트(메릭)옆이 바로 공원이라 아이들과 축구, 테니스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좋았음. 현지인들 역시 오후 3시반 정도면 일찍 퇴근해서 가족이 함께 야구, 축구를 하러 나오는 데 상당히 인상 깊었음.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운동하고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가 하고 느꼈음. 야구, 축구 등 지역 커뮤니티별로 유소년 야구, 축구팀이 리그로 운영되고, 아빠들이 아이들 야구 연습할 때 재능기부하면서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에 많이 부러웠음.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1년간 생활해 보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경험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대단히 만족함. 생활양식과 문화,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부대끼면 살아보는 것 역시 일상에서 탈피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전혀 달리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 좋았음. 특히 아이들에게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대단한 경험이 될 수 있어 유익하리라 판단됨.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는 켄터키의 경우 원래 J1비자였으나 학교측에 요청하여 F1비자로 발급 받았음. J1을 받은 F1을 받는 큰 차이는 없으며, 이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음. 어느 편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여 발급하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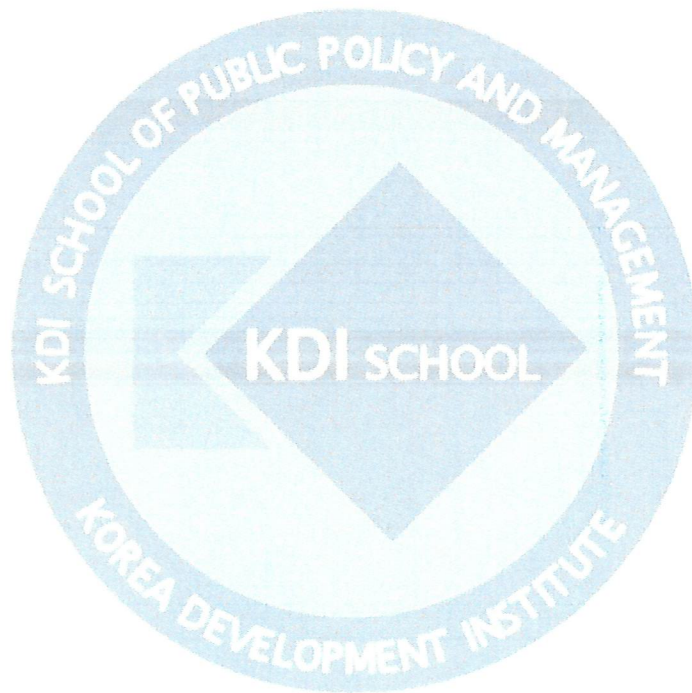
- 미국 입국시는 아틀란타공항을 이용했고, 출국시에는 시카고공항을 환승 공항으로 이용하였음. 아틀란타공항에 비해 시카고공항은 매우 복잡하고 환승이 상당히 불편했던 기억이 남. 귀국시 아틀란타공항에 국적기가 없어 시카고공항을 이용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델타항공과 교류편이라 실제로는 국적기가 취항하고 있었음. 주의할 점은 입출국시점이 겨울이라 시카고공항에 눈이 많고 결빙이 자주되므로 결항이 잘 된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때문에 현지교민들도 겨울에는 시카고공항보다는 아틀란타공항을 이용한다고 하니 참고할 만함.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UK가 소재한 렉싱턴은 미국의 은퇴자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안전하고 의료시설이 매우 잘 된 곳임. 또한, 미국 사람들은 렉싱턴지역을 블루그래스지역이라고 하는데 켄터키주내에서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곳이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여건과 기후조건이 매우 좋은 곳임. UK 역시 통계학을 기반으로 공공정책학 분야에서는 미국내에서도 매우 유명하고, 교육 종료시 상당한 학업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커리큘럼 이 좋음. 더구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상당히

훌륭한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음. 무엇보다 좋은 점은 4계절 내내 푸른 잔디를 볼 수 있어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곳임. 2년차 대학선정시 여러가지 여건을 비교해 보고 판단할 것이나, UK 선택시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현지에서 살더라고 1년간의 유학생생활 중에 자칫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한국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음.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현지인 친구를 사귀어 보라고 권하고 싶음.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주 하는 편임.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으면서 현지인 친구를 사귀면 좋은 인연 뿐만 아니라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됨.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윤희엽	학번	
이메일	navybluemare@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Kentucky / Master of Public Policy (국가) USA
기간	2017.01~2017.12 [귀국일: 2017년12월20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2월 21일

신청인 : 윤희엽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University of Kentucky가 있는 Lexington은 미대륙 중동부 Kentucky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bluegrass 지역의 중심부답게 도시 외곽 어디를 가나 말농장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주도인 Frankfort, 1시간 거리에 Kentucky 주의 상업중심인 Louisville이 있으며, 주변 대도시로는 자동차로 북쪽 1시간 거리에 Cincinnati, 북서쪽 3시간 거리에 Indianapolis, 6시간 거리에 Chicago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6시간 거리에 Atlanta, 동쪽으로 8시간 거리에 Washington D.C. 및 10시간 거리에 New York이 있습니다.

Lexington의 기후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사계절별로 기온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므로 우리나라 겨울에 맞는 방한복과 여름용 옷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비가 상당히 자주 오지만,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캠퍼스내에서 비가 오는 날에도 현지 학생들은 거의 우산을 쓰지 않고 다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습도가 높지 않아 일년 내내 쾌적한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8월에 만 5세에 도달하는 아들 쌍둥이를 동반하여 미국의 공교육 혜택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제가 수학한 2017년부터 만 5세 Kindergarten 입학 기준일자가 10월 1일에서 8월 1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출생한 현지의 아이들도 사립 유치원의 Transitional Kindergarten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봄학기에는 Porter Memorial Preschool, 가을학기에는 Summit Christian Academy의 Transitional Kindergarten 과정을 다녔습니다. Porter Memorial Preschool은 월,수,금 오전 9:00~12:00에 한 명당 약 \$200/월이었고, Summit Christian Academy는 월~금 오전 8:15 ~ 오후 3:15에 도시락 각각 준비하고 한 명당 약 \$550/월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Christian 계열의 사립 유치원으로써 유색인종 비율이 극히 적은 백인 위주의 교육기관입니다. 두 곳 모두 학교 시스템 및 선생님의 질,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 등이 매우 우수하여 추천하고 싶으며, 특히 Summit Christian Academy에 이미 여러 명의 한국 아이들이 있어 적응하기 조금 더 수월할 듯 합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GMP 2년차에 저는 University of Kentucky의 Martin School에서 Master of Public Policy 과정을 수학하였습니다. 졸업이수학점은 KDI 학점인정 9학점과 봄학기 13학점(3학점 4과목, 1학점 수학 과목), 가을학기 15학점(Capstone 포함 5과목)으로 총 37학점입니다. GMP 학생이라고 해서 전혀 봐주는 것 없이 거의 모든 과목들을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고 평가받았습니다. 과목마다 Mid-term, Final 등 시험 2회와 Essay Assignment 2~3회, 1회의 Presentation이 있으며, 매 Class마다 약 30~40페이지의 Reading 숙제가 있습니다. 특히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과목은 Reading 과제를 읽지 않고 참석하면 교수님 질문 등에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들이 공공정책 평가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커리큘럼으로 잘 짜여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지는 못하였지만, Essay 작성시 수업시간에 논의된 미국의 각종 정책에 대한 논의와 분석 방법들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 및 분석해 보는 과정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최소 B 학점이라도 받기 위해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에 모여 밤 늦게까지 공부하였고, Essay를 위해 하얗게 밤을 지낸 적도 많았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Martin School에서는 GMP 2년차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졸업학점 37학점 중 봄학기에 13학점, 가을학기에 Capstone 포함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수강과목들은 학교 당국에서 이미 모두 정해놓았습니다.

봄학기가 정식 개학되기 전 1학점짜리 Basic Math를 수강하였는데, KDI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그냥 들어주면 되는 과목입니다. 1월 중순 정식 개강을 하면 4과목을 수강합니다. Econometrics 과목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KDI에서 Quantitative Method 과목을 수강하여 그나마 초기에는 따라갈 수 있었으나,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교수님 발음이 상당히 난해하여 후반부 이후에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Exam이 Take Home Exam이라 1주일의 시간을 주고 풀게 되었는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스터디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놓쳤던 많은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과목은 정책분석가에게 꼭 필요한 분석툴인 STATA를 배우는 과목으로써 본인이 정한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찾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정책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발표 또는 보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Public Program Evaluation 과목은 정책분석의 방법론을 배우는 과정으로써 Fixed Effect, Propensity Score Matching, Regression Discontinuity, Difference-in-Differences 등에 대해 배우고 관련 논문들을 읽고 총 3편의 Reaction Paper를 작성하였습니다. Policy Overview 과목에서는 왜 Public Policy가 필요한지와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특정 정책에 대해 분석 발표하였습니다.

가을학기에는 총 4과목을 수강하면서 11월 중순에 발표하는 Capstone을 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Policy Process 과목은 특정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 과정들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Multiple Stream, Punctuated Equilibrium,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등에 대해 배우고 그 중 한가지 방법론이 적용된 논문을 읽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조직론 과목에서는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 공적 조직의 구성, 운영, 리더십 등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조직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재정학 과목에서는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연방정부/주정부의 예산 편성, 운영 등에 대해 공부하고 현지 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Capital Improvement Plan Project를 수행하였습니다. 공공경제학 과목에서는 KDI 등에서 배운 미시경제학의 심화과정으로서 세금정책 등 특정 정책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는지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apstone은 여름방학때부터 준비하여 약 30페이지 이내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각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포함하여 계량분석 등을 수행하여 특정 정책의 효과를 분석 발표하는 것입니다. 4과목을 수강하면서 별도로 Capstone을 작성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기숙사가 있긴 하지만 가족을 동반하는 GMP 학생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학교로부터 약 4마일 떨어진 Apartment를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Chinoe Creek Apartment이며 주소는 3532 Creekwood Dr., Lexington, KY 405020 입니다. 집앞에 걸어서

5분거리에 Kroger 마트가 있어 식료품 및 생필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며, 차로 10~15분 거리에 동양마트와 서울마켓이 있어 한국 식재료는 마음껏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식당으로는 학교 앞에 있는 Han Woo Ri가 비교적 맛이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괜찮은 곳입니다. 아파트의 임대료는 매월 \$800 정도(상/하수도, 쓰레기처리비용 등 포함) 지불하였고, TV/인터넷(\$60)과 전기요금(\$100~150)은 별도로 사업자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아파트는 Lexington의 순환도로 격인 New Circle Road의 안쪽에 바로 인접하여 주로 방문하는 아이들 유치원과 YMCA, Public Library, Fayette Mall, Costco에 15분내 접근이 가능하고, 학교는 자동차로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학기중에 공부는 상당히 타이트하고 뻑뻑하게 진행되었지만, 봄학기가 끝나는 5월초부터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까지는 방학기간입니다. 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달 이상의 장기 여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는 약 20일간 동부여행후 렉싱턴 돌아와서 일주일 쉬고 다시 40여일간 서부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국립공원 캠핑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Yellow Stone, 요세미티 국립공원, 나이아가라 폭포는 자연적인 절경과 New York, Washington DC, LA, San Francisco 등 평소 가고싶던 도시들을 대부분 방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순전히 약 두달간 가족들과 모든 시간을 함께 부대끼며 지낸 시간은 앞으로 다시 갖기 어려운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를 통해 저는 공부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생활을 통해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며, 저희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아이들 유치원 드라이브를 해주면서 아이들과 교감하고, 유치원 선생님과 그날그날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GMP 2년차 경험이 우리 가족 모두에서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KDI에서 파견된 GMP 학생들은 모두 J1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미국 입국시 최초 도착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하는데 강화된 보안규정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음식물 때문에 많이 고초를 겪는데, 미국 웬만한 도시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으니 힘들게 한국 식재료를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초기에는 뉴저지 등 '화려한 도시 생활이 가능한' 동부 지방으로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안전한 생활환경, 좋은 기후, 저렴한 물가 등을 감안하면 University of Kentucky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